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정 홍보관과 역사관 설치로 청사 방문객(4천 150명), 본회의 방청객(1천55명)을 대상으로 의정 홍보 활동을 펼쳤다. 도내 초·중·고 학생이 지방의회 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설한 의정아카데미에는 39개교 1천535명이 참여했다.

의원입법 지원 활동으로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정토론회(16회)를 개최했고 동북아 지방의회 간 협력의 일환으로 제8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4월17~20일)에 참석하고, 일본 구마모토현과 중국 윈난성, 구이저우성을 방문해 우호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라북도
道 道의 道의 道의



道花 : 백일홍 道鳥 : 까치
 道木 : 은행나무 캐릭터 : 신명이
 道청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도지사 : 송하진(宋河珍)

개 관

연혁 전라북도는 삼한시대 마한의 부족국가 54개 중 15개가 위치한 중심지였다. 삼국시대에는 마한을 병합한 백제의 영토였다. 백제 의자왕 20년(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패망한 뒤 웅진도독부가 설치돼 당의 지배를 받다가 신라 문무왕 16년(676년)에 당나라를 쫓아낸 후 신라의 영토가 됐다.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전라남·북도인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 처음으로 '전라도'라 칭하고 전주에 관찰사를 뒀다.

고종 33년(1896년) 전국이 13개 도로 개편되면서 전라도는 남북으로 분할되고 전북은 26개 군으로 구성됐다. 1897년 구례군이 전남으로, 무장·흥덕·고창이 전북에 편입됐다. 1931년 전주면이 전주읍으로, 익산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이리읍으로 개칭됐고, 정주면이 정주읍으로 승격됐다. 1935년 10월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며 완주군과 분리됐다. 1947년 이리읍이 이리부로 승격되며 익산군과 분리됐다. 1949년 8월 전주·군산·이리부가 각각 전주시, 군산시, 이리시로 승격됐다. 1963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금산군과 익산군 황화면이 충남으로 이관되고, 충남의 어청도와 개야도가 옥구군에, 전남의 위도면이 부안군으로 편입됐다.

1973년 7월 1일 완주군 봉동면이 봉동읍으로, 1979년 5월 1일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고 1980년 12월 1일 옥구군 옥구면과 미면이 각각 옥구읍과 미성읍으로 승격됐다.

1981년 7월 1일 정읍군 정주읍과 남원군 남원읍이 각각 시로 승격됐다. 1985년 10월 1일 전주시와 인접한 완주군 초촌면이 읍으로 승격됐으며, 1988년 7월 전주에 완산·덕진 2개 출장소가

신설됐다. 1989년 1월 김제군 김제읍이 시로 승격됐고, 5월 1일 전주의 2개 출장소가 구청으로 각각 승격됐다.

1995년 1월 1일 옥구군이 군산시로, 정주시와 정읍군이 정읍시로, 남원군이 남원시로, 김제군이 김제시로 통합됐고, 1995년 5월 10일 이리시와 익산군이 익산시로 통합됐다.

면적·인구·행정구역 총면적은 국토 면적의 8.1%인 8천 67.25km²이다. 그중 임야가 4천493.6km²(55.7%)이고 논과 밭이 2천171.42km²(26.9%) 등이다. 도내 가장 넓은 자치단체는 완주군(821km²)으로 전체 면적의 10.2%를 차지한다. 가장 좁은 면적의 시는 전주시(205.57km²)이고, 군은 부안군(493.1km²)이다.

인구는 2017년 12월 말 기준 79만7천916가구에 185만4천607명이다. 2016년보다 1천 명가량 줄어든 수치다.

전북의 자치단체는 6개 시, 2구, 8개 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25개의 유인도와 78개의 무인도가 있고 도서 중 가장 큰 유인도는 위도다.

전라북도 면적·가구·인구

(2017년 12월 말 현재)

구분	면적(km ²)	가구(세대)	인구(명)		
			계	남	여
합 계	8,067.25	797,916	1,854,607	922,307	932,300
전주시	205.57	260,683	648,964	319,442	329,522
군산시	395.85	115,657	274,997	139,246	135,751
익산시	506.53	126,333	300,187	149,587	150,600
정읍시	692.78	52,722	113,776	56,365	57,411
남원시	752.20	37,686	83,281	40,868	42,413
김제시	544.81	41,712	86,926	43,110	43,816
완주군	820.99	41,835	95,975	49,282	46,693
진안군	789.14	12,927	26,271	13,149	13,122
무주군	631.86	12,001	24,809	12,294	12,515
장수군	533.28	11,144	23,003	11,410	11,593
임실군	597.32	14,557	30,162	15,391	14,771
순창군	495.96	13,872	29,698	14,349	15,349
고창군	607.86	29,159	60,472	29,934	30,538
부안군	493.10	27,628	56,086	27,880	28,206

재 정

2018년도 총예산은 14조6천904억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9.2%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조32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조3천672억원이다. 본청 예산 총규모는 5조6천207억원으로 2017년 대비 5천억원 증가했고, 이중 일반회계는 5조1천301억원, 특별회계는 4천905억원이다.

시·군 예산 총규모는 9조697억원으로 2017년 대비 8천억원가량 증가했고, 이중 일반회계는 8조1천930억원, 특별회계는 8천766억원이다. 본청 일반회계 5조1천301억원 중 세입은 지방세 1조268억원, 세외수입 404억원, 지방교부세 8천219억원, 국고보조금 2조9천681억원이다.

2018년도 전라북도 분청 일반회계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2018년	구성비(%)	2017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1,301	100	46,916	100	4,385	9.35
세입	지방세수입	10,268	20.02	9,491	20.23	777	8.19
	세외수입	404	0.79	444	0.95	△40	△9.01
	경상적 세외수입	197	0.38	200	0.43	△3	△1.50
	임시적 세외수입	207	0.40	244	0.52	△37	△15.16
	지방교부세	8,219	16.02	7,292	15.54	927	12.71
	보조금	29,681	57.86	27,555	58.73	2,126	7.72
	지방채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29	5.32	2,135	4.55	594	27.82
	보전수입 등	1220	2.38	1,331	2.84	△111	△8.34
내부거래	1509	2.94	804	1.71	705	87.69	
합 계	51,301	100.00	46,916	100	4,385	9.35	
세출	일반공공행정	4,079	7.95	3,516	7.49	563	16.01
	공공질서 및 안전	1,269	2.47	1,462	3.12	△193	△13.20
	교육	2,277	4.44	1,975	4.21	302	15.29
	문화 및 관광	2,943	5.74	2,616	5.57	327	12.50
	환경보호	3,298	6.43	3,272	6.97	26	0.79
	사회복지	18,917	36.87	16,216	34.56	2,701	16.66
	보건	990	1.93	780	1.66	210	26.92
	농림해양수산	8,849	17.25	8,741	18.63	108	1.24
	산업·중소기업	1,446	2.82	1,180	2.52	266	22.54
	수송 및 교통	1,287	2.51	1,259	2.68	28	2.22
	국토 및 지역개발	1,930	3.76	1,865	3.98	65	3.49
	과학기술	160	0.31	177	0.38	△17	△9.60
	예비비	395	0.77	553	1.18	△158	△28.57
	기타	3,461	6.75	3,304	7.04	157	4.75

2018년도 전라북도 및 시·군별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7년			증 감	
	계(A)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B)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감액(C=A-B)	증감률(%)
합 계	14,690,433	13,323,158	1,367,275	13,449,605	12,099,630	1,349,975	1,240,828	9.2
도 분 청	5,620,721	5,130,145	490,576	5,158,525	4,691,639	466,886	462,196	9.0
시·군 계	9,069,712	8,193,013	876,699	8,291,080	7,407,991	883,089	778,632	9.4
시 계	5,610,620	5,007,984	602,636	5,148,510	4,507,516	640,994	462,110	9.0
전 주 시	1,525,833	1,325,839	199,994	1,429,726	1,218,587	211,139	96,107	6.7
군 산 시	979,104	856,233	122,871	887,629	756,577	131,052	91,475	10.3
익 산 시	1,091,329	980,151	111,178	980,742	860,970	119,772	110,587	11.3
정 음 시	741,304	684,976	56,328	669,020	612,462	56,558	72,284	10.8
남 원 시	648,130	593,665	54,465	575,444	518,549	56,895	72,686	12.6
김 제 시	624,920	567,120	57,800	605,949	540,371	65,578	18,971	3.1
군 계	3,459,092	3,185,029	274,063	3,142,570	2,900,475	242,095	316,522	10.1
완 주 군	601,911	565,679	36,232	580,496	545,285	35,211	21,415	3.7
진 안 군	401,870	333,691	68,179	345,792	299,917	45,875	56,078	16.2
무 주 군	320,300	282,956	37,344	300,732	264,405	36,327	19,568	6.5
장 수 군	305,966	274,713	31,253	276,644	243,857	32,787	29,322	10.6
임 실 군	367,444	341,999	25,445	330,229	302,536	27,693	37,215	11.3
순 창 군	343,138	326,332	16,806	320,558	301,927	18,631	22,580	7.0
고 창 군	557,641	537,868	19,773	492,826	478,770	14,056	64,815	13.2
부 안 군	560,822	521,791	39,031	495,293	463,778	31,515	65,529	13.2

중점 추진사업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농촌진흥청, 농업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도내·외 전문가 등과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을 위한 전담팀(TF)을 꾸렸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는 도내 산재한 식품(익산), 종자(김제), ICT 농기계(김제), 미생물(정읍), 첨단농업(새만금) 등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엮는 사업이다.

도는 R&D, 기업유치,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확충 등 클러스터별로 취약한 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나서 '인체유용 미생물 산업 육성 사업'에 필요한 국가예산 2억원을 확보해 건강기능식품, 축산항생제 대체사료, 친환경 미생물 생산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 농생명 밸리가 완성되면 8조4천여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5만여 명의 고용창출, 2조7천여 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新) 해양관광벨트 고군산군도 활성화 2017년 12월 새만금 방조제에서 장자도를 연결하는 총 8.77km의 왕복 2차선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돼 관광객 증가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고군산군도는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구성된 해상관광공원이다. 2021년까지 총사업비 118억원을 투입해 화장실 등 관광객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망주봉 인공폭포와 어린이해양체험장, 소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확정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세계잼버리 총회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전북 개최가 확정됐다. 1991년 강원도 고성에 이어 32년 만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열리게 됐다. 'Draw your Dream'이란 주제로 2023년 8월 전북 부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서 12일간 열리며, 역대 최대인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예정이다.

도는 9.9km²(300만 평) 부지에 대집회장과 전시관, 편의시설을 가운데 두고 이를 청소년 야영공간이 둘러싸는 방사형으로 대회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안전한 도시 구축'에 전력 2017년 행정안전부 발표 지역안전 지수에서 전국 도(道) 단위 광역자치체 중 전북이 가장 살기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전북도 인구 1만 명당 5대 범죄(절도·살인·강도·폭력·강간) 발생 건수는 2016년도 97.7건에서 2017년 82.5건으로 줄어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는 각각 2등급, 교통사고와 자살 분야는 각각 3등급을 받았고, 화재와 감염병 분야는 각각 4등급을 받았다.

새만금~전북혁신도시, 핵심 성장축 육성 도의 강점인 농생명을 비롯해 탄소 융복합, 자동차·기계산업을 고도화하고 융합콘텐츠, 바이오, 연기금 중심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만금~전북혁신도시 축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대 전략, 18개 핵심프로젝트, 180개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실현 방안을 내놓았다. 5대 전략은 글로벌 스마트 농생명 산업 육성, 제조업의 스마트 고도화, ICT·융합콘텐츠

츠 및 휴양·힐링 거점 조성, 금융·창업 등 지식 서비스 허브 구축, 글로벌 공공인프라 및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이다.

경제

세계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이 6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섰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2017년 전북도 수출은 2016년 대비 0.3% 증가한 63억826만 달러를 기록해 2012년부터 5년간 지속했던 수출 감소세를 마감했다.

수출이 성장세로 바뀐 것은 세계경제 회복세의 영향으로 합성수지 등 중간재 수출이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견기업이 수출을 이끌었다. 전북의 전체 수출 가운데 중견기업(69개)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31%에 머문 대기업보다 월등했으며 자동차부품, 농기계, 특장차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수입은 2016년 대비 17.6% 증가한 45억7천880만 달러였고 무역수지는 17억2천947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인구는 87만8천 명으로 2016년보다 2만3천 명 감소했다. 노동 가능 인구는 153만3천 명으로 2016년보다 3천 명 증가했으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57.3%(전국평균 62.3%)에 그쳤다.

도내 취업자는 85만8천 명으로 2016년보다 2만 명 줄었다. 농림어업(7천 명)과 광공업(1만7천 명)에서 증가했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4만4천 명 감소했다. 산업별 취업 구성비는 1차산업 14.4%, 2차산업 14.7%, 3차산업 70.9%였으며 고용률은 55.9%로 전국 평균 60.2%보다 낮았다.

사회

안전 관리계획 수립 2월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2017년 전북도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17년도 안전관리계획은 풍수해 등 자연재난 10개 유형, 화재 등 사회재난 28개 유형, 어린이놀이시설 등 안전관리분야 22개 유형으로 세분했다.

재난·안전 유형별 피해 현황 파악 및 원인분석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구체화했다. 특히 2020년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률을 70%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로 단계별 추진 계획도 수립했다. 12억7천만원을 투입해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강작업을 했다.

소방·구조 구급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7년 119구급대는 총 11만6천496차례 출동해 7만4천137건의 구급활동으로 7만5만976명을 이송했다. 이는 2016년 대비 출동 건수는 2천620건(2.2%), 이송 건수는 929회(1.3%), 이송 인원은 603명(0.8%)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환자 발생 유형별로는 급·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환자 수가 4만4천762명으로 이송 인원의 58.9%를 차지했다. 질병 외 환자로는 교통사고 1만1천38명(35.4%), 낙상 9천108명(29.2%) 순으로 집계됐다. 환자 발생 장소는 가정이 4만3

천446명(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1만3천162명(17.3%), 기타 5천604명(7.4%), 상업시설 2천910명(3.8%) 순으로 나타났다.

이송 환자 연령별로는 50대 1만2천706명(16.7%), 60대 1만2천20명(15.8%), 70대 1만4천570명(19.2%), 80대 이상이 1만1천818명(15.6%) 순으로 60대 이상이 전체 이송 환자의 50.5%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8월 7천63명(9.3%), 9월 6천800명(9.0%), 7월 6천795명(8.9%)으로 휴가 기간인 7~9월에 구급차 출동이 많았다. 시간별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까지 3만3천91명을 이송해 하루 이송 건수 대비 44%를 차지했다.

교육 · 문화

교육 2017년 말 기준 유치원은 공립 365개, 사립 171개 등 총 536개로 원생은 2만5천768명이다. 초등학교는 국립 2개, 공립 422개 등 총 424개로 학생은 9만7천833명이다. 중학교는 공립 160개, 사립 49개 등 총 209개로 학생은 5만3천303명이다. 고등학교는 국립 2개, 공립 63개, 사립 68개 등 총 133개로 학생은 6만7천149명이다. 특수학교는 11개로 학생은 1천228명이다.

총 학생 수는 24만4천여 명으로 2016년보다 1천 명 줄었고 교원 수는 1만8천여 명이다.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 8점, 보물 88점, 사적 및 명승지 39곳, 천연기념물 31점, 중요민속자료 13점, 중요무형문화재 9점이 있다. 지방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206점, 무형문화재 77점, 기념물 110점, 민속문화재 35종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문화재자료 155점과 등록문화재 48점을 보유하고 있다.

국보급 문화재는 김제 금산사 미륵전, 익산 미륵사지 석탑,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정읍시 의안백 이화 개국공신녹권,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제36 등 모두 8점이다.

국·도립공원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등 4개의 국립공원이 있다. 대둔산, 마이산, 모악산, 선운산 등 도립공원 4개와 장안산, 강천산 등 2개의 준립공원이 있다.

관광 산악휴양권, 새만금권, 역사문화권, 전통예술권, 해양문화권 등 권역별로 모두 21개소의 관광지가 지정돼 있다.

대표 관광지로는 전주 덕진공원, 군산 근대문화도시, 남원 광한루원, 김제 벽골제, 익산 주얼팰리스 및 보석박물관, 내장산국립공원, 삼례문화예술촌, 마이산, 무주 반디랜드, 임실 치즈테마파크, 변산해수욕장 등이 있다.

특산물 전주의 태극선과 함죽선 · 미나리 · 이강주 · 이미주, 완주의 동상 꽃감 · 감식초 · 대추, 익산의 귀금속과 황등 석공예, 군산의 생선회와 울외장아찌, 김제의 금산 붓과 신평장고, 심포항의 백합 · 쌀, 정읍의 복소리, 부안의 김 · 쌀 · 백합 · 개암죽염, 고창의 복분자주 · 풍천장어 · 수박 · 고수자기, 무주의 사과와 호두, 진안의 인삼 · 표고버섯, 장수의 사과와 곱돌 · 오미자, 남원의 목기, 임실의 담뱃대와 한지, 관촌의 고추, 순창의 고추장 등이 있다.

문화행사 세계소리축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주국제영화제, 춘향제, 김제 지평선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등이 열리고 있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와 전주~군산 벚꽃축제, 익산 보석문화축제, 고창 청보리밭축제, 정읍 내장산 단풍부부사랑축제, 군산 철새축제,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산속여우빛축제, 전주비빔밥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원연장 꽃잔디축제,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군산 콩당보리축제, 남원 바래봉 철쭉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부안 마실축제, 전주한지문화축제, 정읍구절초축제, 익산서동축제, 순창장류축제, 진안고원 동향 한여름 수박축제, 꽃걸음바람축제, 임실치즈축제, 진안향삼축제, 진안군 마을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장〉 황 현

〈부의장〉 조병서, 정호영

〈의석분포〉 더불어민주당 26명, 민주평화당 6명, 바른미래당 3명, 자유한국당 1명, 민중당 1명이 있다.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 예산 · 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만금 MOU 조사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가 있다.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도입 추진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도의회 소속 공무원은 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 집행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잇따라 구속되는 등 잡음이 많았던 주민 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전면 폐지했다.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 조사특위 가동 2011년 체결된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7조6천억원)이 무산된 과정을 파헤치기 위해 2017년 2월 9명의 위원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 6개월간 삼성이 새만금투자를 결정한 배경과 투자협약 · 철회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조사결과 도의회는 삼성그룹의 새만금 MOU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특위는 6개월간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에 참여한 김완주 전 도지사과 정현을 전 행정부지사 등 핵심 당사자들을 증인 신문하고 국무총리실과 삼성을 방문 · 면담한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

특위는 또 이 협약을 주도한 것이 전북도와 삼성이 아니라 총리실이라고 결론지었다. 총리실이 이 협약을 주도한 것은 동남권 신공항 무산으로 민심이 요동치는 경남에 전북으로 이전 예정이던 한국도지주택공사(NH)를 주는 대신 정부의 미움을 받는 삼성을 압박해 전북에 투자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전북 민심을 무마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